

영어 명령문과 동사의 어휘상

이생근

(한려대학교)

Lee, Saeng-Keun. (2018). English imperatives and Aktionsar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3), 179-200. This paper focuses on imperative sentences in English and accounts for the interaction of the imperative and the inherent lexical aspect of verbs (Aktionsart). Since Vendler (1957), it has largely been assumed that state and achievement verbs are incompatible with imperatives (e.g. **Know the answer* and **Recognize John*). However, it is not so difficult to find imperatives that are resistant to this line of analysis (e.g. *Think about getting a job* and *Find the cat*).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verbs commonly or rarely occurring with the imperative correlate with (i) controllability and (ii) the 'process' element of meaning, depending on certain contextual factors. More specifically, the common imperative verbs typically take a human subject as agent, actively controlling the action (or state) expressed by the verb. In this account, state verbs like *appreciate*, *desire*, *know*, *like* and *want* take a human subject as experiencer rather than agent, and thus they rarely occur with the imperative. The second condition specifies that verbs must have a process leading to a culmination to be permitted to occur in imperatives. Thus, the verb *find*, although it is classified as an achievement having the feature [+punctual], can be used in imperatives whenever it has a process of searching that is controlled by agent. In conclusion, the paper demonstrates that imperatives can only be used in contexts in which verbs satisfy these two conditions together.

주제어(Key Words): 명령문(imperatives), 어휘상(Aktionsart), 상태 동사(state), 달성 동사(achievement),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과정(process), 문맥(context)

1. 서론

이 논문은 영어의 명령문(imperatives)에서 어떤 동사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동사가 나타날 수 없는지를 동사의 어휘상(Aktionsart)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의미적으로 명령문은 수취인(addresssee), 즉 청자의 미래 행위(actions)에 영향을 주려는 화자의 바람(desire)을 나타낸다고 정의된다(Sadock & Zwicky, 1985). 이것은 명령, 지시, 허락, 요구 등을 함으로써 수행된다.

- (1) a. Shut the door! (command)
- b. Tell him we're going to his workroom now. (instruction)
- c. Watch television if you like. (permission)
- d. Hand me the salt, please. (request)

그런데 이렇게 영어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명령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사가 다 명령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명령문은 용납되지 않는다.

- (2) a. *Recognize John! (Roberts, 1986, p. 213)
- b. *Win the race! (Mufwene, 1984, p. 9)
- (3) a. *Want some more coffee. (Huddleston & Pullum, 2002, p. 932)
- b. *Be tall! (Barker, 2012, p. 61)

이처럼 명령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와 나타날 수 없는 동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 왔지만, 이 논문의 목적은 Vendler(1957)를 시작으로 하는 동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구)의 어휘상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 Vendler(1957)의 동사 분류를 Van Valin & LaPolla(1997)에 따른 자질 분석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각 부류에 속한 동사들의 시간적 특성을 검토한다. 이어 3절에서는 명령문과 Vendler의 동사 분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4절에서는 예외 없이 명령문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사 부류인 활동 동사(Activity)와 성취 동사(Accomplishment)의 시간구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분석한다. 5절과 6절에서는 각각 달성 동사(Achievement)와 상태 동사(State)가 예외적으로 명령문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를 4절에서 밝힌 공통점을 토대로 논의한다. 마지막 7절은 결론이다.

2. Vendler(1957)의 동사 분류

여러 품사 중에서 동사는 어떤 시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event)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이 어떤 시간적 특성을 갖고, 어떤 시간 내에 어떻게 확장되는지는 동사마다 다르다. 이러한 각 동사에 내재하는 시간적 특성, 즉 동사의 어휘상은 Vendler(1957)가 4개의 동사 분류를 제안하고 난 후 언어학적 쟁점이 되었다.

Vendler는 영어의 동사를 그 시간적 특성의 공통성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Vendler 자신의 논문 중에서는 다소 막연한 부분도 있던 이 분류는 나중에 Dowty(1979), Smith(1997)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교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¹⁾ 4개의 동사 부류를 대표적인 예들과 함께 나타내면 (4)와 같다

- (4) a. 상태 동사(States): have, desire, want, love, know, believe, own, resemble, be in New York
 b. 활동 동사(Activities): run, walk, write letters, push a cart, breathe
 c. 성취 동사(Accomplishments): run a mile, walk to the car, write a letter, recite a poem, grow up, recover from illness
 d. 달성 동사(Achievements): recognize, realize, spot, find, reach (the summit), win (the race), start, stop, die

이것이 동사의 어휘적 의미 속성 중 시간적인 부분, 즉 동사의 어휘적 상을 취급할 때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 분류로 일컬어진다.

각 부류의 동사는 각각의 시간적 특성을 공유한다. (4a)의 상태 동사는 과정(process)이나 변화가 없는 균일한(homogeneous) 상태를 나타낸다. 그 이외의 (4b)-(4d)는 어떤 과정이나 변화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b)의 활동 동사는 특정한 종결점을 갖지 않는 과정만을 나타내는 반면, (4c)의 성취 동사는 과정이 어떤 결과적 상태가 되는지를 나타낸다. (4d)의 달성 동사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어떠한 결과적 상태가 성립하는 것(순간적 변화)만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 부류들 간의 시간적 특성에 관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Van Valin & LaPolla (1997)은 [static], [telic], [punctual]라는 세 개의 시간 자질(temporal features)을 사용했다. 이 자질분석을 통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동사 분류를 제안했다.²⁾

1) Vendler의 동사 분류는 개별 동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분류는 동사구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문 (4)는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2) 수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Vendler(1957)의 최초 분류와 용어를 약간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은 'semelfactive'라고 부르는 다섯 번째 범주의 인정일 것이다

Table 1. Vendler's (1957) verb classes (Van Valin & LaPolla 1997, p. 93)

	States	Activities	Accomplishments	Achievements
[static]	+	-	-	-
[telic]	-	-	+	+
[punctual]	-	-	-	+

여기서 어휘상의 세 자질들의 시간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static]이란 자질인데, 이는 동사의 정적·동적이라는 구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태 동사는 과정이나 변화가 없는 균일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정적(static)이고, 그리하여 [+static] 자질을 갖는 반면 활동 동사, 성취 동사, 달성 동사는 어떤 과정이나 변화를 나타내므로 동적(dynamic)으로 [-static] 자질을 갖는다.

다음으로 [telic] 자질인데, 성취 동사나 달성 동사처럼 동사의 의미가 어떤 결과나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는 유종결적, 즉 [+telic]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상태 동사와 활동 동사)는 무종결적(atelic), 즉 [-telic]이다. 종결성(telicity)은 일반적으로 최고점(culmination point)을 포함하는 사건으로 기술된다(Smith, 1997; Comrie, 1976; Binnick, 1991). 이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에는 사건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예를 들면, *make a chair*와 같은 표현에서 일단 그 의자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은 그 의자를 만드는 과정에 있을 수 없다. Smith(1997)와 Moens(1987)는 최고점의 일부로 상태변화를 포함시켰다. 즉 유종결적 사건이 자연적인 종결점에 도달할 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의자 만드는 것을 다 끝내면 그 의자를 다 만든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은 완결된다. Comrie(1976) 또한 최고점에 이르는 과정이 단지 최고점 그 자체가 아니라 유종결적 사건의 필요한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punctual]은 동사의 의미가 시간적 측면에서 보아 지속적인지(durative), 아니면 순간적인지(instantaneous)를 나타내는 자질이다. 달성 동사만이 [+punctual] 자질을 갖고 나머지 세 부류의 동사는 [-punctual] 자질을 갖는다.

그런데 이 Vendler의 동사 분류는 동사 고유의 시간적 특성(동사의 어휘상)이 관계하는 다양한 언어 현상을 논의하는 데 원용되어왔다. 물론 명령문과 동사 분류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의 일부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분석에 문제가 있고 서로의 설명을 비교하면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다음 절에서는 그것을 살펴본다.

(Smith, 1997). 이 논문은 원래의 4 범주에 기초한 분류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3. 선행연구

3.1. Lakoff(1966, 1970)

명령문은 지금까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져 왔지만, 동사의 특성과 명령문간의 관계를 처음 언급한 것은 Lakoff(1966)이다. Lakoff(1966, 1970)는 어떤 술어들이 상태적·비상태적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하기 위해 몇 개의 통사적 테스트를 제시했다. 통사적 테스트는 낱말이나 구가 특정 통사적 환경(예컨대, 명령문, 진행형 등)에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어구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Lakoff(1970, p. 121)는 명령문이나 진행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술어는 비상태 술어이고, 나타날 수 없는 술어는 상태술어라고 술어를 분류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하면, (5a)의 *slice*는 명령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상태 술어이고 (5b)의 *know*는 명령문에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상태술어다.

- (5) a. Slice the salami.
b. *Know that I am here!

Lakoff는 Vendler의 동사 분류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말하는 상태술어는 상태 동사에, 그리고 비상태 술어는 그 이외의 다른 세 동사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Lakoff의 이러한 구분을 Vendler의 동사 분류와 대응시킨 것이 다음의 Dowty(1979)이다.

3.2. Dowty(1979)

Dowty(1979, p. 55)는 Lakoff가 제안한 일련의 통사적 테스트를 그대로 따르면서 그것을 동사 분류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령문과 관련하여 말하면 Dowty의 고찰에는 결함이 있다. Dowty는 Lakoff의 상태적·비상태적이라는 자질의 차이를 Vendler 동사 부류의 상태 동사와 활동 동사/성취 동사 사이에 보이는 대립으로 파악하고 있어 달성 동사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 결과 명령문에서 사용여부를 나타내는 용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상태 동사, 활동 동사, 성취 동사뿐이며, 달성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 (6) Only non-statives can occur as imperatives:
a. *Know the answer. (State)
b. Run! (Activity)

c. Build a house! (Accomplishment)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3.3. Roberts(1986)

Roberts(1986, p. 212)는 Vendler의 동사 분류를 행위자성(agentivity)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각각의 동사 부류의 주어에 나타나는 명사가 수행하는 의미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Roberts에 따르면 활동 동사와 성취 동사의 주어가 행위자(agent)인 반면 달성 동사와 상태 동사의 주어는 경험자(experiencer) 또는 주제(theme)라고 한다. 그리고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성을 가진 동사 부류, 즉 활동 동사와 성취 동사 뿐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 (7) a. Run! (Activity)
 b. Build the house! (Accomplishment)
 c. *Believe the earth is flat! (State)
 d. *Recognize John! (Achievement)

Dowty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달성 동사이지만, Roberts는 이 유형의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3.4. Smith(1997)

Smith(1997, p. 40)에서도 Roberts와 마찬가지로 명령문을 행위자(agent)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는 사건이 아니면 원래 명령할 수 없으므로 명령문은 행위자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비상태 동사를 요구한다는 것이 Smith의 주장이다. 예로서 Smith가 든 것은 다음 두 문장이다.

- (8) a. Watch your car! (Accomplishment)
 b. *Know Greek! (State)

이러한 Smith의 견해는 대체로 Roberts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Smith가 Roberts와 다른 점은 행위자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Smith에 따르면 행위자가 존재하는 동적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투입되는 에너지와 의지(volition)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Smith(1997, pp. 23-32)는 상태 동사만이 정적이고 모두 동적이라고 생각한다. (8)에서 들

었던 예는 성취 동사와 상태 동사뿐이지만 활동 동사와 달성 동사는 동적인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명령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Smith는 Roberts의 주장과는 달리 달성 동사의 명령문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활동 동사의 명령문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6b)와 (7a)에서 검증되었지만, 달성 동사는 어떨까? Smith는 단지 달성 동사는 동적이고 그리하여 명령문에서 나타난다고(Smith, 1997, p. 46)만 말할 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증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 또한 별로 설득력이 없다. 또한 Roberts가 보여준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없는 달성 동사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달성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난다고 단언해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요컨대, 이 절에서는 명령문과 Vendler의 동사 분류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선행연구를 비교·검토했다. Vendler에 의해 제안된 4 개의 동사 부류 중 상태 동사는 명령문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활동 동사와 성취 동사는 명령문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달성 동사가 명령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데, Roberts은 용인되지 않는 예를 들면서 불가능하다고 본 반면, Smith는 그것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명령문에서 허용되지 않는 달성 동사의 예가 존재하는 이상, 달성 동사는 원칙적으로는 명령문에서 나타나지 않고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두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다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예를 들면서 검토한다.

4. 명령문에 나타나는 동사의 시간구조

4.1. 과정 해석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Vendler의 동사 분류 중 확실히 명령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활동 동사와 성취 동사인데, 그렇다면 이들에 공통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두 동사부류를 사용한 명령문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다고 해석되는지 자세히 검토해 보자.

- (9) a. Read this book!
- b. Watch television if you like.
- c. Swim in one of six pools.
- (10) a. Eat the sandwich.
- b. Call 911.
- c. Tell him we're going to his workroom now.

활동 동사 명령문인 (9)의 경우 해석은 간단하다. 활동 동사는 확정된 종결점을 갖지 않는 단순히 과정만을 나타낸다. 도달해야 할 결과나 상태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끝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동사가 명령문에 사용되는 경우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 과정, 즉 그 동사가 나타내는 전반적인 어휘적 의미로 각각 “책을 읽어라”, “TV를 봐라”, “수영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9)의 예문들이 함축하는 의미는 행위가 전체로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a)의 경우 분명한 것은 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행동이 ‘완전한 사건’(complete event)을 구성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활동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는 ‘동질적이고 자족적(self-contained)’인 상황으로 인식되어진다 (Bache, 1995, p. 74).

이에 반해 성취 동사는 직관적으로 종결점을 향하여 이동하는 활동 동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성취 동사는 내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정해진 활동 동사이다. 그러므로 그것의 내적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는 동일한 종류의 더 큰 단일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즉 성취 동사는 동질적일 수 없다. 예를 들면 (10a)는 정확히 전체 샌드위치가 먹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샌드위치가 조금씩 먹어지다가 결국 다 먹게 된다는 과정의미로 해석된다. 이리하여 성취 동사는 종결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활동 동사와 다르지만, 명령문에 사용되는 경우 활동 동사와 마찬가지로 과정을 명령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과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0b)에서 성취 동사인 *call*은 ‘누름 버튼을 누름’이라는 과정을 통해 ‘전화 연결’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누름 버튼을 눌러도 전화 회선의 부실 등으로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10c)에서 동사 *tell*은 말을 발설하여 정보를 전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소음을 내기 위해 내뿜은 말은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성취 동사의 경우 과정부분은 행위자에 의해 확실하게 명령되는데 반해 결과부분은 명령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911에 전화하라”고 명령한 경우 명령되어지는 것은 “(911에 전화가 연결되도록) 누름 버튼을 누르라”라는 것이며, “그들에게 ...을 말해”라고 명령한 경우 “(그들에게 ...이 전달될 수 있도록) ... 말을 전해”라고 명령하는 셈이다. 정리하면, 성취 동사를 명령문에서 사용하는 경우 물론 결과의 달성은 예정되어 있지만 명령되어지는 것은 어휘적 의미 전체가 아닌 단지 과정부분뿐이다.

활동 동사와 성취 동사가 과정부분을 공유한다는 분석은 Rothstein(2004)이 도입한 두상적 속성 [\pm telic]과 [\pm stages]에 의한 동사 분류에 의해 지지된다.³⁾ 그의 동사 분류에 따르면 활동 동사는 [$-$ telic, $+$ stages] 자질을 갖는 반면 성취 동사는 [$+$ telic, $+$ stages] 자질을 갖는다. 이 두 동사 부류는 상태 동사와는 달리 동적이라는 공통점 외에 [$+$ stages] 자질을

3) 원래 Rothstein(2004)이 [\pm stages] 자질을 도입한 것은 동사의 진행형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stage)는 곧 과정을 의미한다. 이 단계라는 속성, 즉 과정을 갖는 동사의 경우에만 명령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명령문에 의해 명령·지시되는 것이 과정부분이라고 가정하면 (9)와 (10)의 명령문의 해석의 차이는 분명한 설명이 가능하다. (9)의 활동 동사의 명령문에서는 어휘적 의미 전체(전 과정)가 명령되어지고 있는 반면 (10)의 성취 동사의 명령문에서는 어휘적 의미 중 결과적 상태변화 이전의 과정부분만 명령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명령문에서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은 과정부분이라고 규정하면 다른 여분의 설명 원리를 도입하지 않고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4.2. 행위자에 의한 통제

다음 명령문이 앞의 두 예문 (9)와 (10)과 적격성에서 정반대인 이유는 무엇인가?

- (11) a. *Win the race. (= (2b))
 b. *Be tall! (= (3b))

(11a)는 달성 동사가, 그리고 (11b)는 상태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9)와 (10)의 활동 동사와 성취 동사 명령문에서처럼 (목시적) 주어, 즉 청자가 사람으로 각 동사에 대해 행위자역을 갖는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적격성이 다른가?

Dowty(1979)는 행위자성(agentivity)을 판별하기 위한 자질들 중 하나로 '통제(control)'를 제안했다. Gruber(1965)와 Fillmore(1968)의 연구 이래 쪽 행위자역의 정의가 논의되어 왔지만 언어학자들이 행위자성의 개념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예컨대, Stirling, 1993)은 행위자성이 사건성에 대해 의지적 통제(volitional control)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행위자는 그 상황에 대해 통제력을 갖거나 통제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생명사(animate)다.⁴⁾ 그러나 행위자가 반드시 상황에 대해 통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John이 실수로 꽃병을 깨 경우 John은 그 사건의 행위자이지만 그 사건을 통제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John이 고의로 꽃병을 깬다면 그는 행위자이면서 그 사건을 통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통제는 행위자성을 함의하지만 행위자성은 통제를 함의하지 않는다.⁵⁾

4) *Roll down the hill, rock!과 같은 명령문의 비적격성을 주어가 행위자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Lakoff, 1970). 이 경우 명령문의 주어는 유생명사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명령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5) 바로 이런 점에서 'agentivity'가 문헌에서 'agency', 'volitivity', 'intentionality', 'controllability'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왔지만 이 논문은 행위자성보다 통제가능성을 더 상위개념으로 본다.

이 행위자에 의한 통제의 개념은 명령문의 성립에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명령문은 행위(actions)를 지시한다(Barker, 2012). 행위의 본질적 속성은 바라던 최종 상황이 행위자 편에서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이어야 한다. 따라서 명령문은 청자에 의해 수행된 행위로 그 행위를 통제하는 통제자(controller)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활동 동사나 성취 동사가 (9)와 (10)에서처럼 명령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행위자가 통제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9a)에서 책을 읽을 것인지, (10a)에서 샌드위치를 먹을 것인지는 행위자(청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경우 행위자가 상황을 통제하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에 반해 (11a)에서 경주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나 (11b)에서 키를 크게 하는 것은 행위자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예문 (11)의 부적격성은 달성 동사와 상태 동사의 경우 행위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만 우선 말해두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5절과 6절에서 제시한다.

요컨대, 이 절에서는 동사의 시간구조와 명령문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활동 동사나 성취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의 시간구조에 과정부분이 포함되고 이 과정부분을 행위자가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5. 명령문과 달성 동사

달성 동사의 명령문에 관해서 Roberts(1986)은 용인되지 않는 예((7d))를 들면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Smith(1997)는 달성 동사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지 않았다는 것을 3절에서 보았다. 이 절은 어떤 상황에서 달성 동사가 명령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5.1. 달성 동사의 과정해석

2절에서 언급했듯이 *recognize, find, forget, notice*와 같은 달성 동사는 내부적인 단계(stages)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는 달성 동사가 과정 해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 때문에 명령문에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해보자.

(12) a. Find the cat.

b. Find the errors. We'll correct them. (COCA 2011 SPOK)⁶⁾

6) COCA는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를 지칭하고 www.americancorpus.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12)에서 달성 동사 *find*가 실제로 명령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12)의 명령문은 어떤 결과가 성취되도록 명령한다. (12a)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물러나 앉아 고양이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양이를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다. (12b)도 마찬가지로 “오류를 어떻게든 노력하여 찾아내라”는 해석을 갖는다. 이 두 예문 모두 찾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찾는 과정이 전제된다.

여기에서 달성 동사의 시간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달성 동사의 시간구조는 명령문에 의해 명령된 과정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는 명령문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다. Smith(1997, p. 30)에 따르면 많은 달성 동사에는 보통 어떤 예비단계 (preliminary stage)라고 부르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win a race*의 경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려야 하고, *reach the top*의 경우에도 목적지로의 접근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 ‘달리다’와 ‘목적지에 접근하다’처럼 달성 동사 자체에 의해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달성 동사의 성립에 필요한 과정이 바로 Smith가 말하는 예비단계다.

이러한 예비단계는 일반적으로 달성 동사의 성립에는 필요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달성 동사와 분리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find*는 *look for*나 *search for*와 같은 활동 동사 사건과는 본래 별개의 개념이다. 그러나 (13)에서 보듯이 이 예비단계가 달성 동사에 포함될 수 있다.

(13) Hold on *while I find a pen.*

(13)의 *while* 절에서는 펜을 최종적으로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while* 절에서는 지속적([-punctual]) 사건인 상태 동사, 활동 동사, 성취 동사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문 (13)에서는 순간적([+punctual]) 달성 동사인 *find*가 *while* 절에서 나타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find*는 순간적인 상태변화를 나타내는데 (13)의 예에서는 예비단계, 즉 펜을 찾는 행위(과정)가 포함되어 있다.⁷⁾ 이 예비단계를 나타내는 탐색행위와 그 최종단계, 즉 펜을 찾게 되는 행위는 연속적이지만 각각 다른 종류의 행위이다. *while*은 이처럼 순간적인 행위에 시간구간을 갖도록 작용하는 예비단계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는 결국 달성 동사가 본래의 어휘적 의미가 아닌 예비단계를 어휘적 의미의 일부인 과정부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일종의 의사(pseudo) 성취 동사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Kearns (2000, p. 595) 또한 이러한 분석을 지지한다. 그에 따르면 *find*, *notice*와 같은 달성 동사는 비록 우선적으로 최고점에 초점을 둔다할지라도 실제로는 이전 단계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곧 달성 동사가 두 가지 행위(또는 사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동사를

7) Longman 인터넷 사전에 나오는 *find*의 정의 참조: “to discover, see, or get something that you have been searching for” (<https://www.ldoceonline.com/dictionary/find>)

‘지속적 달성 동사(durative achievements)로 지칭하는데 이것들은 성격상 달성 동사와 성취 동사의 융합인 것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달성 동사의 예비단계와 그것의 과정부분으로의 포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왜 달성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가 밝혀진다. 달성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나는 경우 예비단계가 과정부분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성취 동사로 상 전환이 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부분만이 명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5.2. 달성 동사 명령문의 예

예비단계, 즉 과정해석을 갖지 않은 달성 동사는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없다. 예비단계를 갖고 있다할지라도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없는 달성 동사가 있다. 성취 동사로 전환된 달성 동사를 명령문에서 사용하면 명령된 것은 과정부분에 포함된 예비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예비단계의 내용이 달성 동사의 명령문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것을 고찰한다.

5.2.1. recognize와 find

동사 *find*는 일반적으로 결과적으로 발견된 상태에 이르는 독특한 탐색과정을 갖는다 (Adams, 1999, p. 95). 이러한 ‘확대 가능한 달성 동사(extendable achievements)는 *recognize* 같이 소위 ‘엄격한 달성 동사(strict achievements)와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⁸⁾ 이러한 대조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탐색과정, 즉 예비단계가 있는 *find*는 (12)에서 보듯이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그런 예비단계가 없는 *recognize*는 명령문에 나타날 수 없다 (**Recognize John.*(=(7d)))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Smith(1997)는 *recognize*도 *find*처럼 예비행위(단계)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recognize John*이 예비단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파티에서 *John*과 만나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이야기하는 도중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얼마 후 몇 년간 알고 지냈던 *John*이라고 알아본다’는 상황이다. 이 경우 예비단계는 ‘이야기하는 도중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는 부분이다.

만약 Smith의 분석대로 *recognize*가 예비단계를 갖고 있다면 명령문에서 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7d)의 부적격성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여기에서 이러한 예비단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면 행위자에 의한 통제가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절에서 보았듯이 명령문에 의해 명령되는 것은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는 사건이 아니면 안 된다. 또한 바로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달성 동사를 명령문에서 사용하는 경우 명령되어지는 것은 과정부분에 포함된 예비단계이다. 이것들을 함께 고려하면 예비단계가 행위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8) Huddleston & Pullum(2002, p. 121) 참조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 사건구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눈앞의 인물을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알아보는 것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저절로 생기는 생각 때문이다. 반면, '무엇을 찾아다니다'는 그 사람이 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달성 동사에 속하지만 예비단계가 행위자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recognize*는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없고,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는 예비단계를 갖는 *find*는 (12)에서 보듯이 명령문으로 사용된다.

5.2.2. win과 reach

이제 *win*과 *reach*의 경우를 보자.

- (14) a. John reached the top in an hour.
b. Mary won the race in ten minutes.

정상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에 도달한 상태로의 변화는 순간적이고, 경주에서 이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긴 상태로의 변화 또한 순간적이다. 그러나 이 달성 동사들은 *in*-구와 양립가능하다. 이것은 순간적인 변화에 예비단계의 추가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달 이전에 필수적으로 올라가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reach*의 이러한 과정 해석은 (14a)처럼 *in*-구와 함께 사용되면 실제로 'after' 해석(1시간 후)을 갖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구간을 인정하고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4a)에서 초점은 정상에 도달하는 시점(순간)보다 한 시간에 걸쳐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부여된다. (14b)에서 10분이라는 지속 시간은 실제 우승 달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시한다. 실제적인 달성, 다시 말해서 이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긴 상태로의 전환은 *in*-구가 명시하는 시간구간의 끝에서 정확히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달성 동사가 명령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동일하지 않다.

- (15) Reach the park's highest point with a 7-mile, 3,000-foot climb from Mahogany Flat Campground on Wildrose Canyon Road, following forested ridgelines to the summit. (COCA 2004 MAG)
(16) a. *Win the race!
b. #Win the lottery. (Jary & Kissine, 2016)

(16)의 두 예문과는 달리 (15)만이 지시나 명령 해석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대조는 행위

자에 의한 통제가능성에서 차이로 설명된다. 공원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은 행위자의 통제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경주에서 우승하거나 (16a) 복권 1등 당첨(16b)은 행위자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win*의 명령문 사용이 적격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통제된 문맥이다. 즉 청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 경주를 쉽게 이겨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명령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7)과 같은 문맥에서 *win*의 명령문 사용이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준다. 여기서 청자는 테러진압대원들이기 때문에 테러단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테러에서 이기는 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17)에서 두 번째 문장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17) Win the war on terror. Protect our borders from terrorists and illegal immigrants. (COCA 2002 NEWS)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달성 동사의 경우 과정 해석과 행위자의 통제가능성이 명령문의 적격성 판단에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요인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요약하면 이 절에서는 달성 동사가 명령문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예비단계가 과정부분에 포함됨으로써 활동 동사나 성취 동사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명령된 과정부분으로 간주된 예비단계가 행위자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달성 동사의 경우,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명령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보였다.

6. 명령문과 상태 동사

상태 동사는 일반적으로 명령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3절). 실제로 *appreciate, desire, like, want*를 포함한 많은 상태 동사들은 명령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인 것으로 이미 여러 문헌에서 지적되어 왔지만 상태 동사는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어떤 경우 상태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6.1. 상태 동사의 기동상적 해석

상태 동사는 단지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어떤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know the answer*는 답을 알고 있는 상태가 어떤 기간 동안 지속된

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상태 동사가 의미적으로 표현된 시작점(inception point)을 갖지 않는다는 상태 동사 본연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상태 동사 *know*는 (18)에서 보듯이 *at that moment*나 *suddenly*와 같은 순간 부사어와 함께 사용되는 문맥에서는 [+telic] 자질을 갖게 된다(Mittwoch, 1988, p. 81). 이들 부사어는 동사 *know*의 의미에 기동상적(inchoative) 해석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지시된 상태의 시작에 초점을 부여하고, 그리하여 “알게 되었다”(came to/got to know)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18) a. *At that moment* I knew the answer.
 b. She *suddenly* knew it.

이러한 사실은 상태 동사([-telic])가 기동상적 해석을 가지면 [+telic] 동사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telic] 동사는 자연스럽게 시간수식어 *in-*구와 함께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이 시간구가 상태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규정하게 된다. 예문 (19)를 보자.

- (19) John was curious to find out where his grandfather had been born, and with the help of the record office he knew the answer *in a few hours*. (Rothstein, 2004, p. 16)

(19)가 단언하는 것은 몇 시간 이내에 *John*이 답을 아는 상태에 있기 시작했다, 또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사건은 달성 동사가 지시하는 사건들의 특성이다. 이것은 상태 동사가 달성 동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6.2. 상태에 이르는 예비단계

바로 앞 절에서 우리는 상태 동사 *know*가 기동상적 해석을 가질 수 있고, 그리하여 달성 동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는 원래 상태 동사인 것도 달성 동사로 전환되면 달성 동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달성 동사로 전환된 *know*에 과정보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비단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행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

무엇을 안다면 마치 영감을 받은 것처럼 갑자기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18)). 그러한 경우 예비단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20)처럼 주위의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서 점차 뭔가의 전모가 확실히 밝혀지는 과정을 기술할 수 있다.

(20) “I don’t want to believe *until I know for sure*,” he told *The Daily Beast*.
(COCA 2017 MAG)

이 경우 ‘확실히’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상태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비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상태변화에 대한 예비단계는 그 상태가 되게 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주위의 상황은 행위자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비단계는 행위자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know*가 성취 동사로 더 전환될 때 이 예비단계가 과정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 해도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이상 명령문에 의해 명령될 수 없다. 이처럼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예비단계밖에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know*는 보통 명령문으로 나타날 수 없는 동사로 분류된다((5b), (6a), (8b)).⁹⁾ 그러나 *know*가 명령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예들은 일상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

(21) a. Know the cost: Ask a preparer for his or her fees up front.
(COCA 2012 NEWS)

b. Know the law wherever you boat. For instance, the state of Florida codifies wake control into slow speed/minimum wake and idle speed/no-wake zones. (COCA 2007 MAG)

(21)과 같은 문맥에서 *know*는 묻거나(21a) 배워서(21b) “(가격이나 법규를) 알아 두어라”(Get to know)는 동적 의미로 해석된다. (21)에서 과정부분은 ‘알아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다’, 즉 ‘알려고 노력하다’인데 이 노력들은 묻거나 배우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어떤 것을 알려고 노력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는 행위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명령문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과정부분을 명령하는 “알려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처음에는 상태 동사였던 *know*가 달성 동사로 전환될 때 과정부분에 포함된 예비단계가 그 시간구조에 내재하게 되어 그 결과 성취 동사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4.2절에서 논의했듯이 과정부분이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면 그것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전 과정에서 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9) *know*가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Biber et al.(1999, p. 473)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그는 *know*가 진행형과 함께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행위자성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일반적 진행상 동사들은 전형적으로 행위자로서 인간 주어를 취하지만 *know*는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경험자로서 인간주어를 취하고, 그리하여 그 동사에 의해 표현된 행위 (또는 상태)를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6.3. 상태 동사 명령문

앞 절에서 우리는 원래 상태 동사라 해도 행위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예비단계를 과정 부분에 포함시켜 활동 동사나 성취 동사로 전환되면 명령문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know*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다. 이 절에서는 상태 동사가 명령문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그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know* 이외의 다른 인지(cognitive) 동사들과 행위동사 'be'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6.3.1. 인지 동사

Rappaport Havov and Levin(1998, p. 126)은 상태 동사들이 달성 동사로 전환되는 것은 광범위한 현상인데 영어에서 이 현상은 특히 *understand*, *believe*, *know*와 같은 인지 동사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이러한 동사들이 단지 달성 동사로 재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령문에서 사용되는 경우 성취 동사까지 전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22) a. Forgive our son. *Understand* that he never intended to hurt your daughters. (COCA 1994 SPOK)
 b. You have to believe in me. *Believe* I won't drop you. (COCA 1999 FIC)

(22a)의 *understand*는 원래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이다. 그것은 기동상적 해석에 의해 “이해한다”는 의미의 달성 동사로 전환되고, 그다음 이해하기 위한 예비행위를 함으로써 과정 해석을 갖게 되어 결국 “이해하게 되다”라는 성취 동사가 된다. 과정부분은 ‘이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다, 즉 ‘이해하려고 노력하다’인데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행위자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행위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명령문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과정부분을 명령하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즉 “이해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22b)의 *believe*도 “믿고 있다”라는 상태 동사에서 “믿다”라는 달성 동사로 전환된 다음, 마지막으로 “믿게 되다”라는 성취 동사가 된다. 과정부분은 ‘믿게 될 어떤 것을 하다, 즉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된다. 이 과정 부분이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사용되고 (22a)에서처럼 과정부분을 명령하는 “믿도록 하라”로 해석된다.

*think*는 (23a)에서처럼 주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경험자(experiencer)이면 상태 해석을 갖는다.

- (23) a. I *think* this has happened for two reasons. (COCA 2017 ACAD)
 b. *Think* about getting a job. (COCA 2017 NEWS)

그러나 (23b)에서는 주어(청자)가 행위자이고 동시에 통제자인데 그리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직업을 구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보라고 명령(충고)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 동사가 활동 동사 또는 성취 동사로 바뀌게 된다.

동사 *think*의 이러한 두 사용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이와 똑같은 차이는 그러한 구별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도, 분명하지도 않은 다른 동사들에서도 볼 수 있다. (24)의 두 예문들 간의 차이를 고려해보라.

- (24) a. He *remembers* the day he said goodbye with excruciating detail.
 (COCA 2017 FIC)
 b. *Remember* when - when Franklin Roosevelt gave a speech in 1942.
 (COCA 2016 SPOK)

예문 (24a)는 주어가 경험자인 전형적인 상태 문장이다. 어떤 행위자성도 없고, 어떤 통제도 없다. 그리하여 심지어 화자가 그 날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그 날에 대한 기억은 유지된다. 다시 말해서 (24a)는 그가 그 날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24b)에서는 청자가 행위자로서 통제력을 행사한다. 그리하여 (24b)는 화자가 청자에게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의도적으로 그 날의 기억을 불러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24b)에서 동사 *remember*가 단순한 상태 동사가 아니라 행위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25)에서 보듯이 *remember*가 *suddenly*와 함께 사용하여 달성 동사로 전환되거나, *try*의 보충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 (25) a. I *suddenly* remember when Franklin Roosevelt gave a speech in 1942.
 b. *Try* to remember when Franklin Roosevelt gave a speech in 1942.

6.3.2. 행위동사(active) 'be'

동사 *be*는 일반적으로 상태 동사로 분류되지만 명령문에서 사용되면 행위 동사로 전환된다.

- (26) a. Be optimistic.
 b. Be careful.

(26a)의 *be optimistic*이란 상태 동사는 명령문에 사용되면 “낙관적이 되도록 하라”(make yourself be optimistic)라는 성취 동사로 바뀐다(Sag & Pollard, 1991, p. 83). 이 성취 동사는 ‘낙관적인 일을 하다’라는 과정부분(예컨대, ‘재미있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다’)과 그에 따른 ‘낙관적으로 되다’(become optimistic)라는 결과부분으로 구성된다. (26b)의 *be careful*이라는 상태 동사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과정과 그 결과로 생기는 ‘주의 깊게 되다’(become careful)라는 상태변화로 구성된다.

(26a, b)가 갖는 이러한 과정부분은 모두 행위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싫은 것이 아니라’ 재미를 떠올리다,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것은 행위자의 의지에 의해 선택, 즉 통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 명령문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 해석은 각각 “(낙관적이 되도록) 재미를 생각하라”와 “(조심하는 상태에 있을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라”라는 의미가 된다.

이제 (27)이 왜 부적격한 명령문인지 보자.

- (27) a. *Be sick. (Dowty, 1979)
b. *Be tall. (=3b)

(27a)가 명령문으로서 부적격한 것은 “병이 나게 하라”는 상태로의 변화에 이르는 과정 부분이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병이 나게 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27b)는 명령문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경우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키를 크게 하는 것은 행위자의 통제권에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¹⁰⁾

흥미롭게도 때때로 어떤 상태의 부정은 만약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의지력을 필요로 한다면 행위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 (28) a. *Be sad!
b. Don't be sad!

10) 소망을 나타내는 명령문에서는 상태 동사 *be*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동사 해석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Mary*가 막 소개팅에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i)과 같은 명령문을 발화한다고 가정해보자.

(i) Please, be tall.

이 문맥에서 *Mary*는 데이트 상대에게 키가 크라고 명령하거나 충고하거나 제안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데이트 상대가 키가 컸으면 하는 바람이나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명령문은 청자에 대해 행해지는 지시적 명령문과 다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사람은 자신이 슬퍼지게 할 수 있고 계속 슬픔에 잠겨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be sad*의 자연스런 의미는 비행위적 상태다. (28b)처럼 의지적 행위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만 부정을 추가하면 상태가 행위로 바뀌고 그리하여 명령문 사용이 허용된다.

요컨대, 이 절에서는 상태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논의했다. 그러한 경우 상태 동사가 먼저 기동상적 해석에 의해 달성 동사로 전환되고 그다음 이 달성 동사의 예비단계가 과정부분에 포함되어 성취 동사로 전환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한 원래 달성 동사인 것이 성취 동사로 전환된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태 동사의 경우에서도 과정부분이 행위자에 의해 통제될 때만 명령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7.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나고 어떤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없는지를 Vendler(1957)의 동사의 어휘상과 관련하여 검토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단지 활동 동사와 성취 동사만 명령문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이 두 동사가 과정 해석과 행위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데 이러한 두 특성이 명령문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둘째, 달성 동사나 상태 동사가 명령문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행위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예비단계의 포함(즉 과정해석)이나 기동상적 해석과 같은 기제에 의해 결국 성취 동사나 활동 동사로 전환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안했다.

셋째, 이러한 상적 전환을 단순히 일부 동사들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적절한 문맥이 제공되면 동사의 상적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관찰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논문의 분석은 개별 동사들이 단지 그것들 고유의 어휘적 의미 속성들을 토대로 상적 유형들로 분류되어 각 동사의 어휘부에 명시된다는 어휘적 중의성 이론과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 Adams, L. K. (1999). *Complex events and the semantics of -ing sentential comple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Bache, C. (1995). Another look at the distinction between aspect and action. In P. M. Bertinetto, V. Bianchi, Ö. Dahl, & M. Squartini (Eds.), *Temporal reference, aspect and actionality*, vol. 2: *Typological perspectives* (pp. 5-78). Turin: Rosenberg & Sellier.

- Barker, C. (2012). Imperatives denote actions. In A. Guevara, A. Chernilovskaya, & R. Nouwen (Eds.), *Proceedings of Sinn und Bedeutung 16*, 57-70. Cambridge, MA: MITWPL.
- Biber, D.,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Binnick, R. (1991). *Time and the verb*.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Fillmore, C. J. (1968). Lexical entries for verbs. *Foundations of Language*, 4, 373-393.
- Gruber, J. S. (1965). *Studies in lexical rel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Huddleston, R., & Pullum, G. K.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ry, M., & Kissine, M. (2016). When terminology matters: The imperative as a comparative concept. *Linguistics*, 54(1), 119-148.
- Kearns, K. (2000). *Semantics*. Basingstoke: Macmillan.
- Lakoff, G. (1966). Stative verbs and adjectives in English. Report NSF-17. Harvard Computation Laboratory.
- Lakoff, G. (1970). *Irregularity in syntax*.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 Mittwoch, A. (1988). Aspects of English aspect: On the interaction of perfect, progressive, and durational phras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203-54.
- Moens, M. (1987). *Tense, aspect and temporal refer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 Mufwene, S. S. (1984). *Stativity and the progressive*. Bloomington: IULC.
- Rappaport Hovav, M., & Levin, B. (1998). Building verb meanings. In M. Butt & W. Geuder (Eds.), *The projection of arguments: Lexical and compositional factors* (pp. 97-134). Stanford: CSLI Publications.
- Roberts, I. (1986). *The representation of implicit and dethematized subjects*. Dordrecht: Foris.
- Rothstein, S. (2004). *Structuring events: A study in the semantics of lexical aspect*. Oxford: Blackwell.
- Sadock, J. M., & Zwicky, A. M. (1985). Sentence type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Clause structure* (pp.

- 155-19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g, I. A., & Pollard, C. (1991). An integrated theory of complement control. *Language*, 67(1), 63-113.
- Smith, C. (1997). *The parameter of aspect* (2nd ed.).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tirling, L. (1993). *Switch-reference and discourse representation*.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Valin, R. D., Jr. & LaPolla, R. J. (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ndler, Z. (1957).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2), 143-160.

이생근

57764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 94-13

한려대학교 교양과 조교수

전화: (061)760-1115

이메일: eredcarrot@gmail.com

Received on July 29,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6, 2018

Accepted on September 30, 2018